



여수세계박람회 D-8

세계 최대 돔스크린 '무탄소 한국관' 황홀



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소연료전지 최초 도입...생생한 바다 속 관람

거대한 가림막이 올라가면, 웅장한 음악과 함께 길이 116m의 대형 화면에 불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다도해, 몽돌해안, 다행이온, 죽방법, 갯벌, 오징어잡이 배가 차례로 화면을 장식한다. 불이 커지면, 화면은 순식간에 유리벽으로 변하고 벽 안에서는 무희가 환상적인 춤을 춘다. 모든 공연이 끝나면 관람객과 무희가 어우러져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춘다.

3일 준공된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 ~ 8월 12일 이하 박람회) 한국관 1관의 모습이다.

한국관은 개막전 관람객들에게 박람회장을 오픈해 운영 시스템을 점검한 1·2차 예행연습에서 각각 9700명, 1만 8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아 아쿠아리움, 주제관과 함께 3대 인기전시관으로 떠올랐다.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1관과 함께, 2관 돔스크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름 30m, 높이 15m, 둘레 95m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은 전시관 천

정에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관람객들은 반구형 돔 안에서 산호와 해초, 거대한 고래와 가오리, 물고기 때 군무 등 깊은 바다 속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바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물부족 등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바다에서 사막, 초원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한국관은 친환경건축물로 설계한 에너지자립형 전시관이기도 하다. 해수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지원을 적극 활용했고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했다.

한국관 외관은 태극 문양과 전통 창호 무늬로 장식했고, 전시관에서는 한국 바다의 역사와 무녀의 연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강강술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다.

한편 한국관은 입장권을 구매 후 사전 혹은 현장에서 예매해야만 볼 수 있는 예매제 전시관이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기기인터넷 시범개통·NFC 체험관 개관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기기(Giga) 인터넷'과 '근접통신기술(NFC)'로 전 세계인에게 IT 강국의 위상을 과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3일 여수에서 여수엑스포타운 기기(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개통식과 NFC 체험관 개관식을 열었다.

각국 관계자들의 속소인 여수엑스포타운 500가구에 현재의 100Mbps급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초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장비 구축과 서비스는 KT가 맡았다. 이날 함께 문을 연 NFC체험관은 박람회장

내 다양한 NFC 응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NFC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을 스마트한 IT 세계로 안내한다.

NFC체험관 설치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SK플래닛,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람회 지역에서 모바일 결제, 음성안내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등 NFC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GS칼텍스관 '에너지 필드' 공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7개의 독립기업관 중 하나인 GS칼텍스관인 '에너지 필드'를 3일 공개했다.

'에너지 필드'는 연면적 1377㎡의 3층 건물이며,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움직임(Never-ending Movement)이 형상화됐고, 독일의 세계적 건축디자인 그룹인 '이틀리에 브루크너'에 의해 설계됐다. 외관은 동양에너지의 원천인 '논'을 모티브로 해서 관람객들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준다.

건물 외부에 18m 높이의 '블레이드'라는 대규모 조형물 380개가 설치돼 있는 에너지 필드는 언뜻 보기에 거대한 풀밭처럼 보이기도 한다. 블레이드 내부에 LED 조명을 넣었고, 관람객이 블레이드를 건드리면 해당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다른 블레이드까지 색깔이 바뀌도록 하는 등 에너지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지난해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받은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술마루'를 10일 개관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특급호텔 '히든베이' 개장

여수세계박람회 특급호텔 '히든베이'(HiddenBay·사진)가 3일 영업을 시작했다.

전 객실이 신월동 해변 절경을 향해 위치한 히든베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총 131실의 객실을 갖췄다. 또 야외 풀장, 사우나, 휴트니스센터, 연회장,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도 완비됐고 400명이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식당도 운영된다.

히든베이 유광현 마케팅 팀장은 "세계적인 행사



인 박람회에 걸맞게 최고의 서비스로 국내외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 가능
(티사 보정기 환경)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무등빌딩임대



임대문의 062)222-052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마찰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려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자작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 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마찰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려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자작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첩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 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기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저렴한 결과 알레르기 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090204-증-473호